

3. 아시아적 가치(Asian Values)의 논쟁

- (배경) 최근 아시아 경제 위기의 원인을 '아시아적 가치'에서 찾는 논의가 전개되면서,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음
- (평가) '아시아적 가치'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, 논쟁이 보다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 형태, 노사관계, 소비행태 등 미시적인 부분으로까지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음
- (방향) 자본주의의 동질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글로벌 스탠다드화에 적극 참여하되, 21세기 문화자본주의에 대비하기 위한 창조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창출해야 함

□ 논쟁의 배경: '아시아적 가치'의 아이러니

- (배경 1) 급속한 경제발전의 주요 요인으로서의 '아시아적 가치'

- 일본을 비롯한 한국, 대만, 싱가포르, 홍콩 등 동아시아 나라들이 급속히 성장하게 된 요인을 서구와는 다른 역사·문화적 요인에 결부시키는 논의가 1970~80년대에 시작됨
- 이후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'유교자본주의'論 등에서처럼 '아시아적 가치'는 뒤늦게 자본주의화 내지 고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본받을만한 경제발전 패턴으로까지 받아들여짐

- (배경 2)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으로서의 '아시아적 가치'

- 1980년대 말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치기 시작하고, 뒤이어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, 그리고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가 궤탄에 이르자, 이러한 경제 위기의 원인을 다시 '아시아적 가치'에서 찾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됨

□ '아시아적 가치' 및 '아시아적 성장 모델'의 특징

- '아시아적 가치'의 일반적 특징

- 집단중심주의, 인간관계 중시(연고주의), 근면·절약·희생 정신, 높은 교육열 등
- 이상과 같은 '아시아적 가치'는 '서구식 가치'(개인주의, 경쟁주의, 합리적 계약관계 등)와 대비됨

- '아시아적 성장 모델'의 특징

- 집단중심주의 → 정부 주도의 수출제일주의
- 저임금 구조 및 높은 저축률
- 요소 투입량 증대에 의한 성장 방식 등
- 이와 대비되는 '서구식 성장모델'의 특징으로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주의, 기술 진보 및 요소생산성 증대에 의한 성장 방식 등이 거론됨

□ 쟁점: 최근 아시아 경제 위기와 '아시아적 가치'

- '아시아적 가치'의 존재 여부와 경제발전과의 관계

- 서구의 많은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, 그리고 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 등은 '아시아적 가치'의 존재를 인정하지만, 이러한 가치 혹은 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함
- 물론 '아시아적 가치'라는 개념 자체를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음. 예컨대 앨빈 토플러는, 앵글로 색슨의 가치라는 것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, 아시아의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봄

- 경제 위기와 '아시아적 가치'의 관련성이 없다는 견해

- 이광요: 최근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문화적 요인이란, '아시아적 가치'에 의한 것이 아니라 '아시아적 가치'의 타락에 기인한 것임
 - P. 후쿠야마: 최근 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'정책의 실패'일 뿐, 문화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
 - P. 크루그만: 지금의 경제 위기와 '아시아적 가치'는 무관함
- 이들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(예: 역사화 문화가 다른 아시아 사회에 서구식 시장만능주의가 무리하게 주입된 결과 혹은 세계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진통 등)에 두거나, 내부적 요인이라 해도 금융제도의 미비나 정책의 실패 등에 둠

- 경제 위기는 '아시아적 가치'에 기인한다는 견해

- J. 뷰캐넌: "아시아는 합리적 계약관계보다는 개인적 친소관계를 중시"해 왔으며, "이같은 특징이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"고 봄
- 이들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인간관계 중심 사고로 인한 경제주체 및 사회세력간

의 왜곡된 유착관계, 국가중심주의적 가치관에 기인하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인한 비효율적 금융시장, 관료주의, 부정부패 등에 등

□ 평가 및 전망

- ‘아시아적 가치’의 존재 및 그 경제적 기능에 관하여 다시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작금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구명하고자 하는 인식의 산물임
 - 경제 위기의 원인을 ‘아시아적 가치’에 돌리기 이전에, 역사·문화적 요인이 경제적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가를 비롯해, 경제 위기를 야기한 수많은 요인 중에서 역사·문화적 요인, 특히 ‘아시아적 가치’라고 불리는 아시아 ‘공통의’ 가치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인가 등 다소 비경제적인 해명이 요구됨
 - 논쟁이 보다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 형태나 노사관계, 소비자의 생활양식 등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. 예를 들면 지연·혈연·학력 중심의 고용 관행 및 소비 행태 등이 자본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결과인가, 아니면 자본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가를 구명하기는 매우 어려움
 - 다만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‘아시아적 가치’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, 서구식 자본주의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서구식 자본주의 가치관마저 이식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
 - 물론 지나치게 자국의 역사·문화적 독자성을 내세우는 경우 세계경제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도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(기업 또한 마찬가지임)
- 글로벌 스탠다드化의 물결에 적극 참여하되, 21세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가치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
 - OECD, IMF나 IBRD 등 세계 기구를 통해 미국식 자본주의의 이식과 전파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음
 - 이런 세계경제의 개방화·자유화 추세에 역행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, 글로벌 스탠다드化에 부응하면서 고유의 문화를 창출해 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임(21세기는 경제의 문화화, 문화의 경제화가 중요시되는 자본주의임)

(박 동 철 dcpark@hri.co.kr 2724-4030)